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시,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출범

- 사천시의 '항공MRO 사업지키기 대책위원회'가 6월 28일 공식 출범
-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직접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출범한 대책위는 대책위원장 사천상공회의소 서희영 회장을 포함해 지역 도의원, 시의원, 항공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으로 구성
- 사천시는 현행 법률상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항공기 개조사업에 참여해 직접 항공MRO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'인천국제공항공사법', '한국공항공사법', '공항시설법'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
- 송도근 사천시장은 “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참여는 국가핵심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, 국토의 균형발전과 항공MRO사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”이라고 강조
- 대책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계획

□ KAEMS, 美전투기·보잉737 정비 등 내년까지 일감 목표 달성

- 한국항공서비스(KAEMS)는 2019년 2월 제주항공의 B737 초도정비를 시작으로, 2년 4개월 만에 50호기의 민항기 정비 실적을 거둠
- 사업 가속화를 통해 올해 말까지 누적 정비 80대를, 내년 상반기에는 누적 정비 100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- 7월 말 출범 3주년을 맞는 KAEMS는 국내 첫 MRO 기업으로써, 약 200여명의 전문 정비 인력이 엔진 정비부터 도색, 객실 정비 등 항공기 곳곳을 점검
- KAEMS는 국내 저비용항공사(LCC)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, 지난 5월엔 기존에 보유한 보잉 B737에 이어 추가로 에어버스 A320 정비인증까지 확보
- 매출도 2019년 61억 원에서 올해 21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전망으로, 국내뿐 아니라 해외 MRO 물량 수주도 대폭 늘려 2025년 2000억원, 2030년 1조원 매출을 달성할 계획

□ KAI-영국항공사에 7600억 규모 날개구성품 납품계약

- 한국항공우주산업은 7월 8일 기존 거래처인 해외 항공기회사와 항공기날개 주요 구성품과 관련해 약 7654억 원 규모 납품계약 체결
- 이번 계약규모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0년 거둔 연결기준 매출의 26.71%에 해당
- 판매 및 공급지역은 영국이며 계약은 2026년 1월1일에 시작돼 2030년 12월31일에 마칠 예정이며, 계약상대와 계약조건 등은 영업기밀 사항으로 공시를 유보하기로 결정



도내 동향

□ 금속노조 경남지부, 인천공항공사 MRO사업참여 취소 촉구

-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7월 12일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'인천 국제공항공사 MRO사업참여 전면취소 촉구' 기자회견을 가짐

- 노조는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(IAI), (주)샤프 테크닉스K와 ‘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’를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, 이는 법령까지 어겨가며 항공MRO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호소
- 항공MRO산업은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중요기술을 외국기업이 대가없이 우리에게 이전해줄 리 없으며, 외국자본 투자유치로 인한 국가적 피해 또한 우려됨을 피력
-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“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산업 진출을 반대하며, 정부가 지정한 한국MRO사업자인 KAMES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”고 덧붙임



국내 동향

□ 순창 오면 경량항공기 탈 수 있다, 항공레저스포츠 도입

- 7월 6일 순창군청에서 이남섭 부군수와 (주)무빙트립 신현오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'경량항공기 항공레저스포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'이 체결
- 무빙트립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까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상품을 개발해 운영한 회사로,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보장
- 패러글라이딩에 동력장치를 결합한 이 경량항공기는 부착된 모터를 통해 일반 비행기처럼 지상에서 바로 떠올라 상공에서 3시간 정도 비행하며, 조종사가 동반 탑승해 누구나 이용 가능
- 순창군은 이로써 기존의 승마, 카누, 서바이벌 등에 이어 경량항공기까지 가능한 항공레저스포츠 접목 관광도시의 기반을 갖추게 됨



무빙트립의 경량항공기

□ 30~40대 빠진 트래블버블, 여행 · 항공업계 실망

- 7월부터 트래블버블(여행안전권역)이 본격 추진되지만, 백신 접종 상황과 여행지 특성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수요를 기대할 수 없어서 여행·항공업계의 우려만 높아짐
- 2019년 대한항공의 괌·사이판 노선의 여객 연령층 비중을 분석해보면 40대 미만 여행객 비중이 전체의 약 85% 수준
- 괌과 사이판이 트래블버블로 지정됐지만, 주된 여행 연령층인 30~40대 고객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수요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
- 트래블버블 시행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당장 항공업계 수요가 회복되기 힘들다는 업계의 관측



해외 동향

□ 보잉 장거리 여객기 777X, 2023년 하반기까지 승인 미뤄져

- 미 연방항공청(FAA)은 보잉이 장거리 여객기 시장의 간판으로 개발 중인 777X 승인을 2023년 하반기로 미뤄, 출시가 늦춰짐

- 보잉은 독일의 항공사 루프트한자, 에미레이트 항공 등으로부터 모두 320대의 777X 주문을 받은 상황
- 그러나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이 2018년과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잇따라 추락하면서 777X 승인과 출시 계획에도 영향을 줌
- 737 맥스 기종의 추락 원인으로 지목된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 부품 중 일부가 777X에도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
- 보잉사는 성명을 통해 "777X 개발 과정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안전"이라며 안전에 관련된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힘

□ 중국 공산당 100년 행사에 자체개발 스텔스기 15대 등장

-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 스텔스기와 신형 헬기 등 헬기 총 71대를 선보임
- 베이징 상공에 대형 '공산당기'를 매단 Z-8L 헬기가 나타났고, 이어 '위대한 중국 인민 만세'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또 다른 Z-8L 헬기 4대가 등장
- 또 Z-10 공격용 헬기와 Z-19 공격용 헬기 29대가 창당 10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'100' 대형으로 비행하며 공산당 창당을 축하했으며, J-10 전투기 10대와 스텔스 전투기 J-20 15대도 모습 드러냄
- 군사전문가 푸첸사오는 "행사에 참여한 모든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것"이라며 "중국 항공산업의 빠른 발전과 성과를 보여준다"고 말함
- 전문가들은 특히 J-20 스텔스 전투기 15대가 한 번에 비행하는 모습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며, 중국 항공 산업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



- 스텔스 전투기란 ?
- 스텔스는 '은밀하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'이라는 뜻
- 상대의 레이더, 적외선 탐지기, 음향탐지기 및 육안에 의한 탐지를 포함한 모든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은폐기술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말함
- 전폭: 12.88m · 전장: 21.00m
- 전고: 4.45m
- 최대이륙중량: 37,000kg

중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J-20

작성일	2021. 7. 13.(화)	보고일	2021. 7. 15.(목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오은미(055-831-3470)